

# 여수산단 근로자 피로까지 씻는다

### 시, 작업복 공동세탁소 내년 건립 복합문화센터 내 330㎡ 규모 유해물질 오염 세탁물 간편 처리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공동세탁소가 내년에 건립된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단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를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삼동지구에 2021년부터 3년 동안 국·도비 40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을 투입, 노동자를 위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 뒤 이 중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330㎡, 지상1층 규모로 공동세탁소를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공동세탁소를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공동세탁소가 준공되면 화학산단의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자인 삼동지구는 여수국가산단 초입에 위치하고 시내권과 근접해 세탁물 운반과 처리가 용이하다. 비용면에서도 세탁물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 2만4000여 노동자들을 위한 산단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동세탁소를 건립해 노동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공동세탁소 건립부터 운영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해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착실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광양 제조업 10곳 중 3곳 "3분기 경기 호전"

### 광양상의 100곳 설문...코로나 백신·수출호조 등 이유 꼽아

광양지역 관내 제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3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21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6.6%,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6.5%, '경기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26.9%로 집계됐다.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주요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보급'과 '수출호조',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정책', '수주증가' 등을 꼽았다.

하반기 실적(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환율·원자재가 변동성(30.7%)', '최저임금,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22.8%)', '내수시장 침체(21.8%)', '美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자금조달 여건 악화(각각 7.9%)' 등으로 나타났다.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 기업들은 '일정한 시차

를 두고 서서히 코로나 이전상황으로 복귀할 것(69.2%)으로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관련, 기업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되,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80.8%)고 답했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경기 회복 불씨가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ESG 경영은 적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사랑의 밥차' 다시 달린다

###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경로당 30곳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사랑의 밥차'가 다시 달린다.

보성군이 이용자 수가 많은 관내 경로당 30곳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운영을 재개한다.

7일부터 매주 1차례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경로당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로당 30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총 30차례 사랑의 밥차

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관내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으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 내 식사 재개를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이번 주부터



경로당 이용 시 열 체크,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 아래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광양실버주택복지관, 시니어 체육교실 운영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은 복지관 헬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일 '시니어 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은 광양공공실버주택 내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실 및 상담실과 체력단련실(당구장, 헬스장), 경로식당, 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체육교실은 노인의 올바른 운동방법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문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매일 오후 3~4시 운영되며,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 체육 지원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운동 시작 전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수건 등을 이용한 폼의 유연성 키우기, 복지관에 비치된 헬스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체조 등을 함께 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광양시 어르신들이 광양실버주택복지관 헬스장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과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태우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다양한 헬스기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신체 단련과 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코로나 긴장완화 없다

### 순천시, 조례동 야간 집중점검

순천시가 2030세대가 주로 찾는 조례동 일대의 룸소주방과 맥주집,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따라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4개반 2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조례동 일대에서 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준수,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계도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완화된 방역수칙으로 자칫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업주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군 '기능 상실' 자치법규 연내 정비

### 조례 32건·규칙 16건 등 54건

곡성군이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 54건을 올해 안에 정비한다.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건·규칙 70건·훈령 48건·예규 2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를 벌였다.

결과 조례 32건, 규칙 16건, 훈령 6건 등 총 54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는 곡성군 자치법규 발간 규정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과 별도로 입주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한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물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문의처: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8번길)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연선로 99번길)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